

BARINGS

미국 부동산 시장 회복 본격화

미국 부동산 분기 리서치 리포트



MAY 2022

22-2169564

요약

경제

-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5.7%)엔 못 미치지만 여전히 건조한 수준(3.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쇄조치 완화 및 경제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성장률이 예외적으로 높았습니다.
- 인플레이션 압력 및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기업 지출, 노동 시장은 건재하며, 경제 및 임대 수요 증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미 연준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는 연준의 과잉반응으로 경기 팽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 가격 및 투자 심리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 지정학적 긴장, 팬데믹 지속 등의 변동성이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미국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미 전역 팬데믹 규제 완화에 따라, 1분기 주요 부동산 섹터 임대 수요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코로나19 변이 출현 시 경제 활동 회복이 둔화될 수 있으나, 팬데믹 초기와 같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2021년 기록적이었던 자본 시장 거래 활동은 올해 1분기에도 건조세를 유지하며 1분기 총 거래액이 1,7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 RCA가 발표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CPPI)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상승하며,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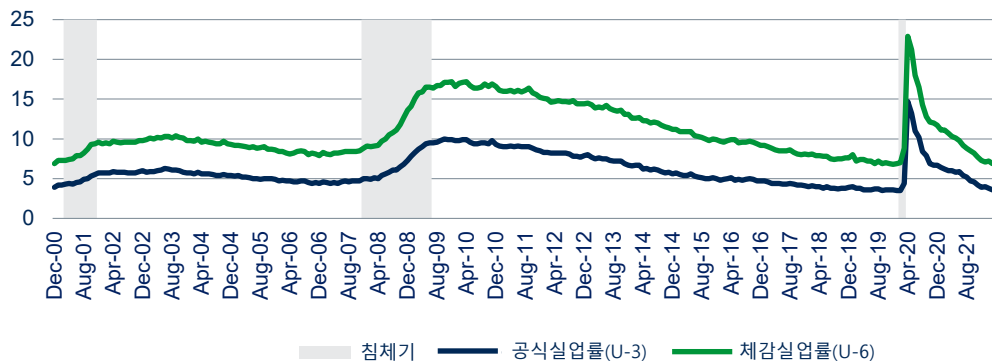
경제 전망

미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36년래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2021년 성장률(5.7%)엔 못 미치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3.2%)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지출 및 노동시장의 빠른 회복이 경기 확장 및 세입자 수요 동시 회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월 추가된 일자리 수는 431,000개에 달했으며, 실업률은 이제 팬데믹 이전 최저치에 비해 겨우 10 bps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신규 추가 일자리는 약 4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률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에 고무된 미 연준은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간 한 번 이상 50 bps 이상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The Conference Board 발표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지수 구성 항목 중 하나인 현재 상황 지수 선전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비자신뢰지수의 구성 항목인 기대 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확실성,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노동 시장 수급으로 공급자 우위 임금 상승세가 평균보다 높아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사무실로 복귀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미كرون 변이에 따른 감염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코로나19 사망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여전히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의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재개된 봉쇄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아파트 및 산업용 부동산 펀더멘털이 전례 없는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성과가 다소 뒤쳐졌던 호텔, 오피스, 리테일 부동산 펀더멘털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경제 성장 역풍이 거세지만, 당분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1: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 강한 회복세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Moody's Economy.com;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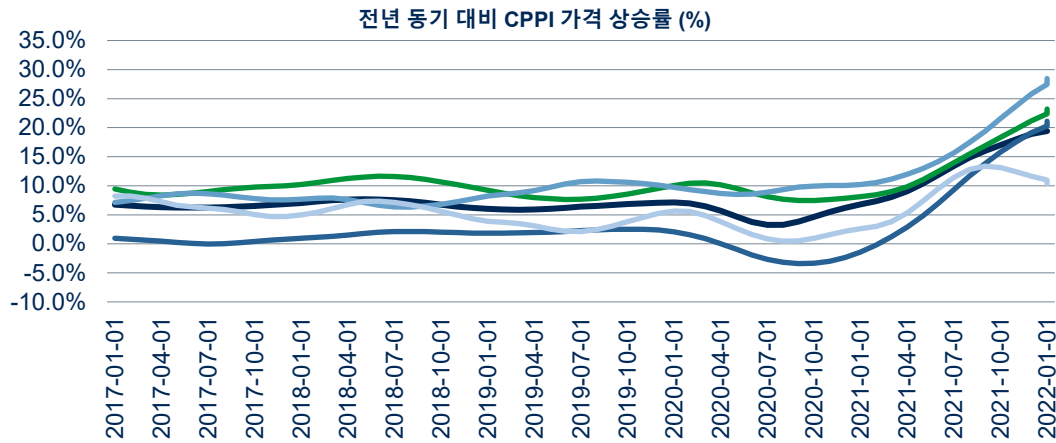
자본 시장

2021년 활발했던 자본 시장은 올해 1분기 총 거래량이 1,710억 달러를 기록, 2021년 1분기보다 56% 증가하며 견조세를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총 630억 달러였으며, 오피스(351억 달러), 산업용 부동산(339억 달러), 리테일 부동산(186억 달러), 호텔(11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섹터 거래량이 2021년 1분기보다 50% 이상 증가했으며, 리테일 섹터 증가율(102%)은 다른 섹터에 비해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RCA 발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CPPI) 기준 2021년 3월 대비 17.4% 상승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산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30.1%)이 두드러졌으며, 아파트(22.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피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다른 섹터에 비해 낮았으나, 여전히 평균 이상(10.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Cap Rate(자본 환원률)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사모 부동산 시장 Cap Rate 안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1분기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80 bps 급등하면서 부동산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거 평균보다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투자 성향 및 풍부한 드라이 파우더(dry powder; 사모펀드 등이 보유한 미투자 자금) 등이 현 자산 가치 및 거래 유동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 변동성으로 인해 당분간 투자자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는 사모 부동산 투자 매력에 여전히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2: 2022년에도 자본 시장 견조세 지속



출처: RCA; FRED;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3월 31일 기준.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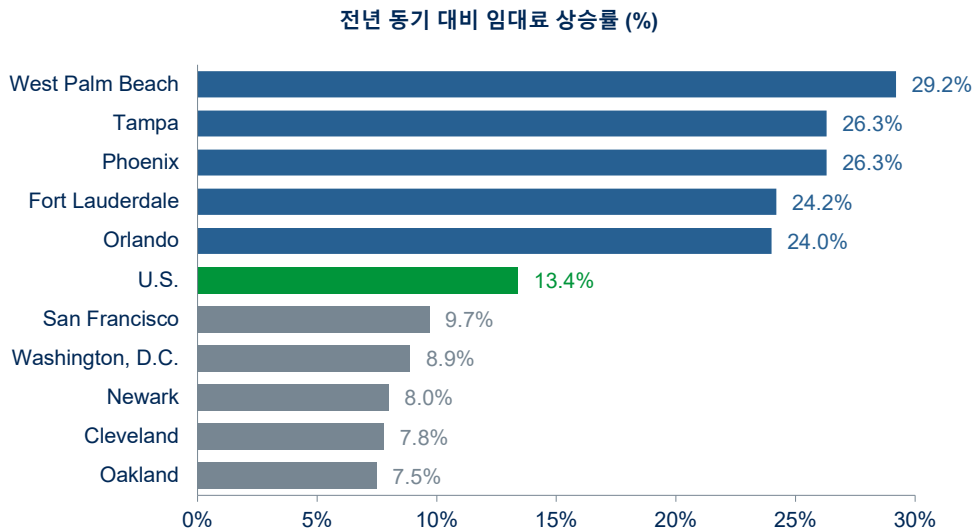
아파트 섹터

CBRE-EA에 따르면, 1분기 아파트 공실률은 전년 동기보다 230bps 하락한 2.5%로 추정되며, 역대 최저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과거보다 높게 치솟으면서, 실질 임대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유치를 위해 임대주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컨세션(concession)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5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가 신규 공급 물량을 꾸준히 상회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강세와 함께 평균치 이상의 임대료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년 두 자릿수 증가율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장기 구조적 수요 요인의 수혜를 받아온 선벨트(sun belt; 북위 37도 이남의 일조량이 많은 지역) 아파트 시장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팜 비치, 탬파, 피닉스, 포트 로더데일, 올랜도 등은 지난해 임대료가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이후 더욱 많은 주민이 해당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어크, 클리블랜드, 오클랜드 등은 코로나19 시 해당 지역을 벗어나 이주하는 주민이 늘면서 상대 성과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파이프라인은 매우 건재하며 둔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2개월 트레일링 기준 미국 전역 다세대 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해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부채 파이낸싱 규모가 상당하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제약 요인이 건축 시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표 3: 아파트 임대료는 선벨트 대도시 주도로 예외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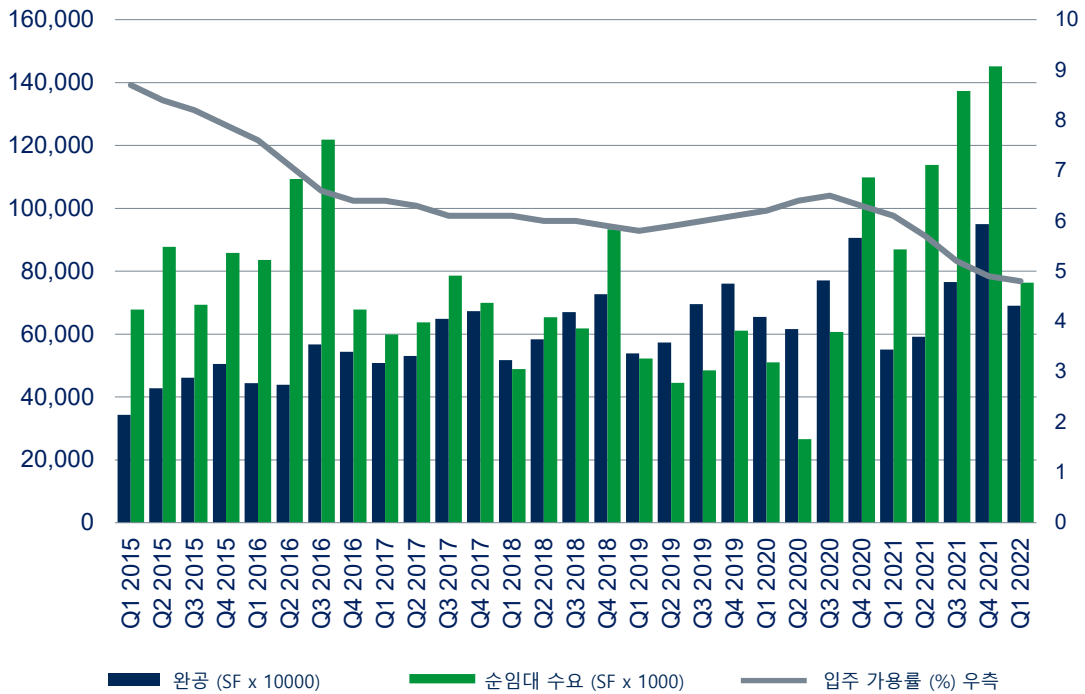
출처: RealPage;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1년 4분기 기준.

산업용 부동산 섹터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이슈 등으로 기업 마진 방어에 어려움이 있긴 하나, 산업용 부동산 섹터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글로벌 교역 조건 등 거시경제 요인들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기능 노후화 등에 따른 장기 구조적 요인, 소비 트렌드 등도 여전히 산업용 부동산 및 관련 자본 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용 부동산 섹터 입주 가용률(임대 가능 면적; availability rate)은 2022년 1분기 4.8%로 전분기보다 10 bps 추가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순임대 수요(net absorption) 및 완공률 증가 속도 또한 이전 분기 대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인력 부족 등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단기 공급은 일부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물류 거점 입주 가용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도표 4: 산업용 부동산 섹터 펀더멘털 긍정적



출처: CBRE-EA;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1분기 기준.

오피스 부동산 섹터

1분기 오피스 부동산 순임대 수요는 전 분기 증가세 대비 크게 둔화됐으나 여전히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오피스 점유율이 사실상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오피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오피스 점유율 반등과 함께 전면 사무실 출근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시장 지지세도 긍정적입니다. 미 전역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직/비즈니스 서비스 일자리도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거의 3%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공급 물량 증가로 2022년 공실률 하락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은 올해 안정화 되어 내년도 더욱 강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신규 물량의 시장 공급으로 시장에 물량이 넘쳐남에 따라 오피스 부동산 전체 공실률은 20 bps 증가한 16.8%로 상승했습니다. 도심 공실률은 40 bps 증가한 16.8%를 기록한 반면, 교외 지역 공실률(16.9%)은 소폭 상승(10 bps)에 그쳤습니다. 분기 실적은 지역별 수급 현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CBRE-EA가 모니터링하는 64개 시장 중 절반 가량의 순임대 수요가 긍정적이었으며, 보스턴, 휴스턴, 오스틴, 덴버의 순임대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샬럿, 내슈빌, 사우스플로리다 도심 지역 역시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사무실 복귀에 지연을 겪고 있는 뉴욕시의 순임대 수요는 아직 꽤 낮은 편입니다.

오피스 부동산 섹터의 자본시장 동향은 긍정적입니다. 교외 및 도심권역(CBD) 시장 모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도심권역(CBD) 시장 매매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움직임으로 볼 때 투자자의 오피스 부동산 섹터 복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및 오피스 근무 체제로의 복귀가 가속화하는 2022년은 미국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오피스는 팬데믹 이후 오피스 섹터 재편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학사 학위 이상 인력의 실업률이 2%로 하락해 인재 확보 전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업들은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적합한 오피스 공간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 및 향후 오피스 수요 감안 시, 팬데믹 이후 오피스 부동산 투자는 보다 까다로우며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5: 오피스 섹터 펀더멘털 회복세 지속



출처: CBRE-EA;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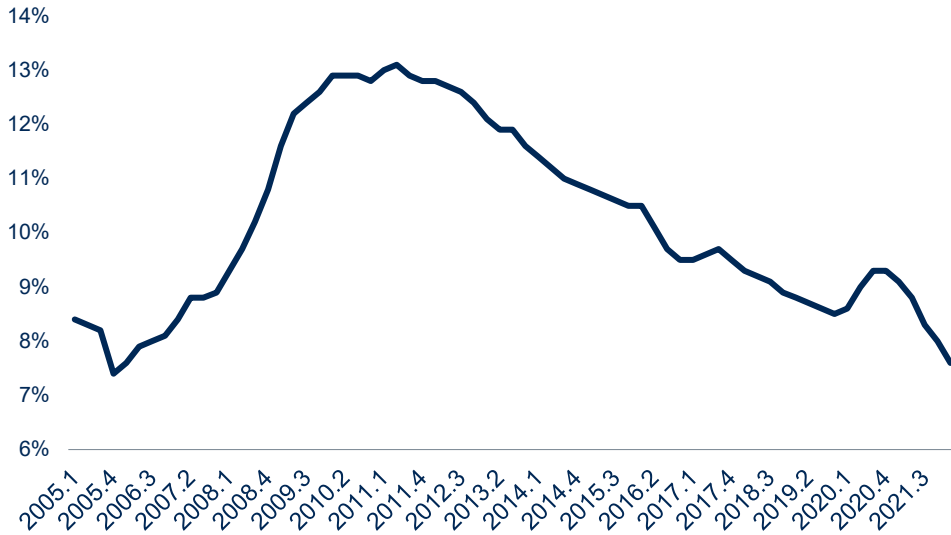
리테일 부동산 섹터

CBRE-EA에 따르면, 지역 상권 입주 가용률은 전분기 대비 40 bps 하락한 7.6%로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입주 가용률의 꾸준한 하락으로 볼 때, 소비자의 소비 패턴 일부가 온·오프라인 채널을 융합하는 옴니 채널 쇼핑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역 상권 부동산의 회복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 모든 시장의 입주 가용률이 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시작된 “보복 소비”에 일부 힘입어 강세를 보인 소매 판매 성장 속도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자동차 제외 3개월 트레일링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4.6% 증가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백화점, 무점포 리테일업체와 같이 매출 증가율이 높은 부문이 선전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지출이 증가해도 옴니 채널 쇼핑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지역 상권 점포 유지는 리테일업체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엔터테인먼트 및 서비스 지출은 계속 증가하겠지만,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필수재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 판매 증대로 이어져 리테일 부동산 섹터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벨트(Sun Belt)와 같이 인구 증가율이 높고 입주자 유형이 다양하며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디자인을 갖춘 지역 상권은 팬데믹 이후 리테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양호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도표 6: 팬데믹 이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리테일 부동산 섹터 입주 가용률



출처: U.S. Census Bureau;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3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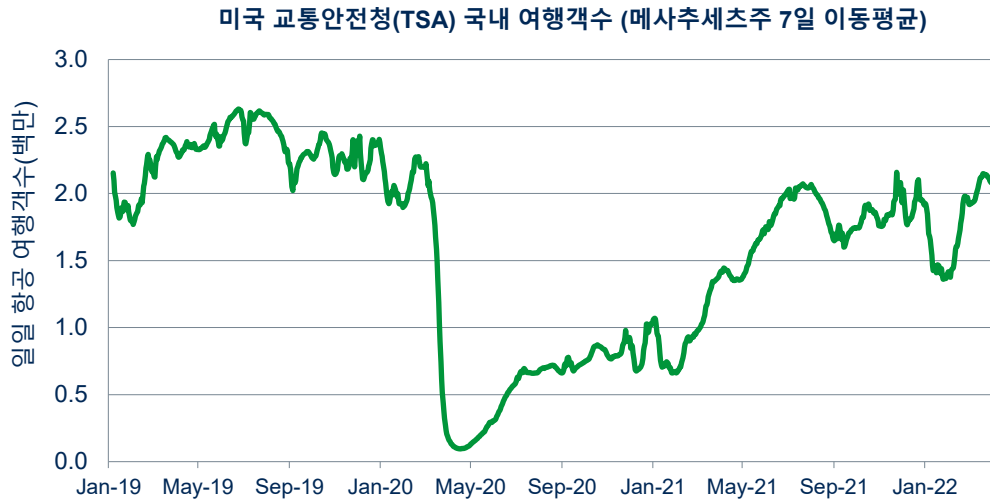
호텔 섹터

호텔 수요는 팬데믹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레저 여행 급증으로 1분기 회복세를 지속했습니다. 3월 호텔 점유율은 전년 동월 36.3%에서 56.9%로 증가했으며, 객실당 매출(RevPAR)은 전년 동월 47달러에서 10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객실당 매출 및 점유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각각 10.7% 및 1,200 bps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호텔 섹터 침체기와 달리 객실 단가는 이전 최고치보다 5.1%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평균 객실단가(ADR)가 2021년 3월 대비 35%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 탬파, 피닉스, 오아후, 올랜도 등 레저 활동이 활발한 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업 수요에 주로 의존하는 시장 성과는 뒤처지는 등, 팬데믹 이후 대형 호텔 실적은 고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피스 근무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 늘면서 비즈니스 출장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간 국내선 승객수는 2020년 2월 최고치보다 겨우 5% 낮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출장객을 주로 유치하는 상급 호텔 시장 성과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이한 코로나19 규제, 백신 접종률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수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호텔 경영자는 늘어난 수요 충족, 특히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저 및 접객 섹터 일자리는 팬데믹 발발과 함께 820만 개가 감소했고, 그 후 670만 개의 일자리가 복구됐지만, 호텔 경영자는 비용 증가 이외에도 복귀 인력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표 7: 항공 여행 회복 지속



출처: TSA; Barings Real Estate Research. 2022년 3월 기준.

요약

지정학적 긴장, 광범위한 고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시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재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미친 영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총 입주 수요는 증가세에 있으나, 세부 유형 및 지역별 회복 양상은 다르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베어링 부동산 리서치팀

베어링 부동산 리서치팀은 미국 리서치팀의 맥스 첸(Dags Chen) 대표와 유럽 리서치팀의 폴 스투어트(Paul Stewart)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 및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리서치 팀원들의 경력은, 전세계 시장, 자산군, 셀/바이 사이드를 포괄하며, 전문 분야 또한 자산 평가, 법제, 기술적 분석, 학술 연구 등 광범위합니다. 팀은 부동산 관련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보다 나은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맥스 첸(Dags Chen, CFA)
미국 부동산 리서치 및 전략 대표



라이언 마(Ryan Ma, CFA)
매니징 디렉터



티제이 파커(TJ Parker, CFA)
매니징 디렉터

중요 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할 계획이나(UH 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운용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 및 판매사 배포용. 본 자료는 개인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현재 의견 및 예상, 예측에 근거한 예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 정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결과는 예측 자료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기에 인용된 제 3 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투자 결정도 본 자료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명입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ERS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JAPAN LIMITE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FINANCE LLP,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FUND MANAGERS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SWITZERLAND SARL,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BARINGS LLC의 금융서비스 계열사로(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으로 통칭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

COPYRIGHT © 2019 BARINGS.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BARINGS (또는 베어링)과 로고 디자인은 BARINGS 의상표이며 미국 및 전 세계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BARINGS 에게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2- 2180388 호 (2022.5.2~2023.5.1)

BARINGS. C BARINGS. COM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